



##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무재해 현장 이룩

- 서브원 LG데이콤수원사옥 신축공사 현장 -

취재 | 최중덕 기자

## 현 현장의 정리정돈은 무재해의 필수

현장에 들어서자 두 가지가 눈에 바로 들어왔다.

먼저 정보통신 건물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건물외관이 매우 깔끔하다는 것. 또 눈길을 끈 것은 바로 현장 내부의 모습이었다. 깔끔히 정리된 자재와 기계 설비들을 보면 마감공정이 한창인 현장이 맞나 하는 의심마저 들을 정도다. 이렇듯 깔끔한 현장의 모습은 타이트한 계획과 시공절차가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다른 건축물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작업 공간 또한 넉넉하지 않은 현장의 특성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공과 자재반입 계획을 타이트하게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현장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기본적으로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박순원 현장소장이 가지고 있는 안전철학이다. 자신은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 사람이니 만큼,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심은 절대 허용치 않고 현장의 안전을 세심히 챙긴다. 그의 이러한 안전철학은 공사초기부터 시작해 준공을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감단계에 접어들어 사무실 업무가 많음에도, 오히려 사무실 보다 현장에서 하루의 대부분 보내고 있는 모습에서는 그의 무재해 준공을 위한 의지와 안전신념을 느낄 수 있다.

## 추락, 화재사고는 중점 관리 대상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추락재해다.

이를 막기 위해 이곳에서는 외부에서 곤도라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곤도라 위에 안전로프를 내려 코브라를 걸어 작업을 하게끔 한다. 그리고 작업반경이 넓은 경우 기존의 1~2m의 생명줄로는 높은 위치에서 생명줄을 다시 제거하고 체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짧은 시간이지만 작업자가 추락에 노출된다. 이러한 짧은 위험순간도 허용하지 않고 이곳에서는 생명줄을 연장할 수 있는 연장 생명줄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골조공사단계에서 난간대 설치가 어려운 것은 밀착 컴플렉터를 사용하여 견고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에는 철근 배근하여 난간대와 합판으로 밀폐시켰다. 또 계단참단부에 난간대 설치가 어려운 곳에도 특수 제작된 형틀을 이용하여 안전난간대를 별도로 설치해놓고 있다.

다음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화재예방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각층에 방화수 및 소화기를 설치해놨다. 또한 주간 계획에 화기 사용계획도 포함시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냈으며, 바닥에서 1미터 이상에서 화기를 사용할 시에는 하단에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감시인을 배치한 후 사용케 하고 있다. 아울러 토공사를 할 때에는 상부에서 자재가 내려가거나 토사가 외부로 나갈 때 가동됨을 알리는 사이렌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충돌 재해도 예방케 하고 있다.

대형건설현장 공사가 아니면 그만큼 지원이 적을 수 있고, 또 공기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들 현장의 무재해는 매우 어렵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이같은 편견을 보기 좋게 깨나가는 현장이 있다. 바로 LG데이콤 수원사옥 신축공사 현장이다. 이곳은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현장의 안전마인드로 이러한 각종 약재들을 극복해왔다. 이곳 현장의 준공일은 3월 18일이다. 대형공사현장도 쉽게 이를 수 없다는 무재해 현장의 기록에 성큼 다가서 있는 LG데이콤 수원사옥 신축공사를 찾아 그동안의 안전정책과 현재 마무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그 외에도 자율안전공도구 점검대를 설치하여 공도구 반입 시 누전 및 접지, 피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B/T비계, 사다리, 우마 등은 설치 반입 시 전수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다.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해 무재해 현장으로 기억되길**

LG데이콤 수원사옥 RC구조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지어진다. 지금 현재는 공정의 85%까지 진행되어 있다.

마감공정이면 보통 페트를 요원들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곳 현장에서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전확인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페트를 요원을 더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작과 마무리 할 때 사고가 많이 나듯, 마감공정이면 근로자들이 느슨해질 수 있어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이곳의 안전마인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외형적인 안전보다 실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적인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곳 현장이 남은 한 달간의 공정을 잘 마무리 하여,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역사 속에 무재해 현장으로 기억될 수 있길 기대한다. ☺



**남은 기간 방심하지 않고 무재해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박 순 원 현장소장

기본적으로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실수를 전제로 현장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나가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시스템적인 노력에 불과할 뿐, 사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실수를 극복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공기와 원가를 확보해야 하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현장은 착공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저력으로 얼마남지 않은 준공일까지 무재해를 반드시 이어나갈 것입니다. 직원들과 현장 근로자분들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안전한 작업으로 현장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무재해를 위해서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장 세 현 안전팀장

간혹 "안전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해서 못해먹겠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 봐주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와 같은 안전관리자분들은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의 안전과 현장의 무재해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악역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와 같은 안전관리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 가족의 행복을 지킨다는 사명 아래, 오늘 하루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